

한 치도 에누리 없는 진리 속에서 살고 있다

B21면에서 계속

로 세포입니다. 이 세포가 바깥에서 세균성이 들어오는 것도 막습니다. 이것도 내 마음에서 벌써 입력을 해 놔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내면으로다 입력이 항상 돼야 되는데, 1년을 해 놓든지 2년을 해 놓든지 그런 자기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력을 해 놓으면 거기에서는 세균성을 막고, 또 들일 건 들이고 내보낼 건 내보내고 체로 치는 역할을 합니다. 통신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잘 파악해서 들이고 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통신하고 조달을 하는 것이 이 세포의 모든 소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마음 도리에서 '하나'를 안다면 '하나'로 돌아가는 걸 알고, '하나'로 돌아가는 걸 안다면 바로 너 나 없이 전체가 같이 돌아간다는 걸 알 겁니다. 이 내면으로 이렇게 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이 아십니까? 여러분 한 몸뚱이 속에 수많은 생명들이 들어 있는데 내가 밥 한 그릇을 먹는다면 혼자 먹는 것입니까, 그게 혼자 먹는 것입니까, 혼자 보는 것입니까, 혼자 하는 것입니까, 혼자 사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혼자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했던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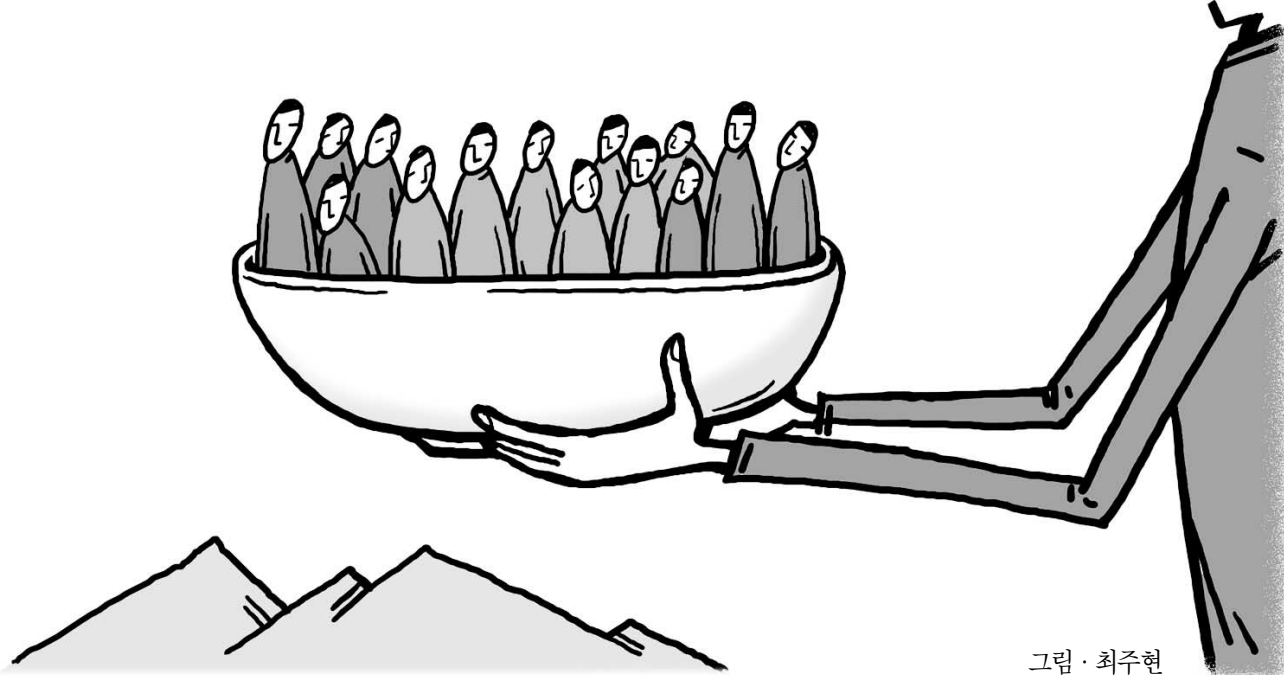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고, 먼 길을 갈 때 바로 내면세계의 주인공에다 맡겨 놓으면 자신이 돼 준단 말입니다.

이것을 못 믿겠거든 한번 여러분 가정을 들여다보세요. 아버지가 아버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때로는 아들이 되고 때로는 남편이 되고 때로는 아버지가 되고 때로는 사위가 되고, 어느 회사의 직원이 되기도 하고 사장이 되기도 하고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름이 수만 가지로 그렇게 스스로 자동적으로 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남의 뿌리에다가 내 뿌리가 돼 달라고, 내 나무를 성장하게 해 주고 푸르게 살게 해 달라고 빌거나 기도하지 말고 내 뿌리에 내가 직접 '네 몸을 형성시켰으니가 너만이 잘 끌고 갈 수 있고 건강하게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너뿐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해 나가시는 것이 한 가정에 이익하고 그렇습니다.

달마 대사가 양 무제더러 너는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한 말과 그 뜻을 아시죠? 그리고 또 유마힐 거사가 내 중생부터 나아가 내 병이 낫겠다고 한 말, 그것은 내면의 여러 생명들이 다 나아가, 병이 들지 않고 파위를 일으키지 않아야 여러분이 건강하고 가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건강하

이 마음 도리에서 하나를 안다면 하나로 돌아가는 걸 알고

시오. (대중 박수)

그래서 내 몸뚱이 속에 그 많은 생명의 의식들이 바로 더불어 나인 고로 내가 혼자 나라는 걸 세울 게 하나도 없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다가 외 부적으로도 나를 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 만사 돌 하나 풀 한 포기든 내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생명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몸 아닌 게 하나도 없으니 어찌 내가 했다고 하며 내가 잘 한다고 하며 내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공이 색이요 색이 공이 니라, 내가 한 말이 하나도 없고 내가 생각한 것조차도 없느니라. 나의 고깃덩어리를 믿지 마라. 나를 따르되 나를 믿지 말고, 너부터 믿어서 너부터 알면 바로 과거의 부(父)를 현재의 자(子)가 상봉케 되느니라. 상봉케 된다면 바로 너를 지도할 수 있는 자성부처가 바로 너를 이끌어 갈 수 있으며 바로 서로서로 마음과 마음으로 전답이 되면서

점점을 하면서 일체 모든 만물을 보고 깨달을 수 있고, 병풍 둘러치듯 둘러친 이 세상이 팔만대장경에 속하느니라. 너만 못한 게 하나도 없으며 너만큼 또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느니라." 하셨던 겁니다.

이 모두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자체가, 내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부딪친다는 것을 알고 상대를 맞지 말고 상대를 원망하지 말고 상대를 중요하지 말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마음에도 모든 것을 맡겨 놓고 '저 사람의 주인공이나 내 주인공이나, 저 사람의 생명이나 내 생명이나 둘이 아니니 바로 내가 나왔기 때문에 나한테 부딪치는 거니까 모든 것을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믿어야 합니다. 한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모두가 얽히고설켜서 살살살 이를 해 나가는데, 상대가 잘못하더라도 자식들에게 욕을 하지 말고 부모를 원망하지 말고, 모든 건 거기에 맡겨 놓으면서 마음으로 잡아가지 말

로 몸을 잡으려고 한다면 몸이 잡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의해서 몸이 움직여지지 몸으로 인해서 마음이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니어서 마음으로부터 바로 몸이 움직여지고 생명의 근본으로부터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자신이 병이 나거나 일가친척이 병이 나거나 내 식구들이 병이 낫어도, 주인공은 둘이 아닌 거를 알고 내 주인공에다가 '너만이 낫게 할 수 있다.' 했을 때에 그게 즉각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할 수 없는 말이지만 병이 나서 아팠을 때 주인공에다 맡겨 놓으면 일체제불의 마음과 더불어 활나활나 내 마음을 통해서 나 투십니다. 이 말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이 모든 마음들이, 내가 병이 나서 주인공에다 맡겨 봤을 때는 여기가 일체제불의 마음이 올 수 있고 갈 수 있게끔 하는 통신처입니다. 통신처, 내 집에 전화를 놓지 않는다면 전화를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듯이, 내 집부터 전화를 놓아야 되듯이, 내 주인공의 뜻을 세워 놓지 않으면, 선을 세워 놓지 않는다면 통신이 되지 않습니다.

병이 나서 거기다 맡겼을 때는 바로 한 찰나에 이 몸속에 들어 있는 자생중생들이 약사보살이 돼 가지고 병을 낫게 하는 의사가 되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일이 닦혔을 때 '주인공! 당신만 이것을 대치해서 해 나갈 수 있잖아!' 했을 때는 관세음이가 되시고 '아이구, 명이 짧아서 어찌나!' 하고 거기다 맡겼을 때는 칠성이 돼 주시고, 또는 '아

하나로 돌아가는 걸 안다면 바로 너 나 없이 전체가 같이 돌아감을 알아

이구, 좋은 데로 가야 할 텐데, 어찌나!' 하고 걱정을 하면서 주인공에 맡겼을 때는 지장이 돼 주시고, 또 마음에 물리가 터지지 않아서 애를 쓰고 거기다 맡겼을 때는 동방의 아축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물리가 터지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돌 아끼게 지켜볼 수 있는 관법을 잘 알아야지.' 한다면 바로 아미타가 돼 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각자 마음속에는 기묘한 법이 그렇게 있으며, 아까도 얘기했듯이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을 여러분이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쓸 수 있다 이런 소립니다.

지금 급속이나 전력이 곳곳에 쓰이지 않는 데가 없듯이 우리의 마음의 금강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아니 쓰여지는 데가 없다 이 소립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아프면 의사가 되고 내가 명이 짧을 때는 칠성이 돼 주고, 몸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거기다가 모든 걸 맡겨 놓고 '너만이 잘 가게 할 수 있다.' 했을 때에는 바로 용신이 돼 주

며 화복하다 이겁니다. 자식들도 그렇고, 나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욕하고 때리고 그러지 말고, 또 어떠한 일이 생기거나 사회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거론이 된다 하더라도 남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잘못된 것 잘못된 것을 판단해서 거기다가 맡겨 놓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원망하지 않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가정도 화복해지고 사회도 화복해지고 모든 게 다 화복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다 아십시오. (대중 박수) 그러면 여러분,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다음 호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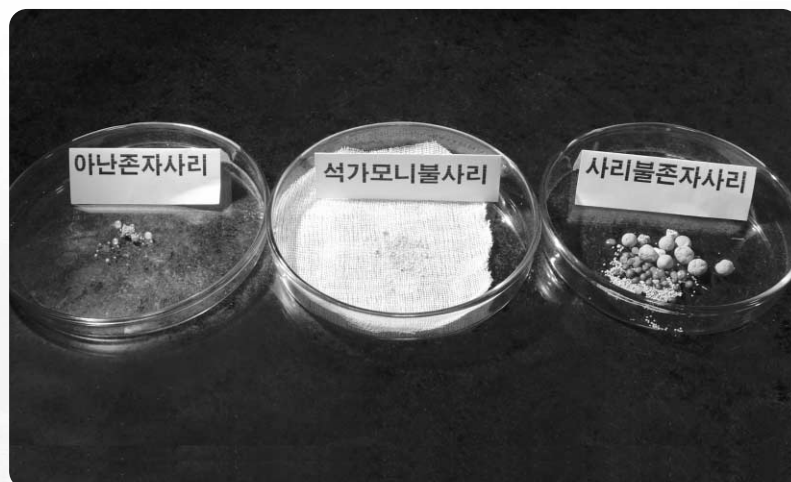
*위 법문은 1993년 10월 10일 부산대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불 · 사리불 · 아란존자 진신사리 친견법회

구원겁 전에 성불하시고도 중생제도라는 일대사 인연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바세계에 오신 석가모니부처님!

지혜제일 사리불존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까지 25년간 부처님을 시봉하신, 그래서 가장 부처님의 범문을 많이 들어 다문제일 아란존자님의 진신사리 삼탑을 장엄하게 조성하고 있는 천호산 백운사에서 평생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에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이 시대 한국불교의 참 지도자이신 태공 월주 대종사님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대법회를 봉행한 후 마지막으로 진신 사리를 대중이 함께 친견한 후 사리탑에 봉안하오니 모두 오셔서 부처님을 친견하는 선근인연을 맺으시고 복덕과 지혜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일 시 : 10월 29일(음 9월 8일) 일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천호산 백운사 (☎ 063-836-8047)
- 증명법사 : 태공 월주 대종사(전 조계종 총무원장)
- 참고사항
 1. 사리친견은 법회 당일만 가능합니다.
 2. 오시는 길은 호남고속도로 익산 인터체인지로 나와 여산으로 오시다가 여산 송씨 문중산으로 오세요.
 3. 부처님 진신사리탑은 8각 9층 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 17교구 천호산 백운사 주지 우성 합장